1.글로벌 채권

* <뉴욕 채권> 국채가격, '하드 브렉시트' 불안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영국 및 독일 국채가격 하락 영향으로 장기물 위주로 하락

* 국채가격, 英 고등법원 판결과 BOE의 장밋빛 경제 전망 발표 후 영국 등 유럽 국채가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하락 출발
* 이날 발표된 지표 중 고용과 생산성은 긍정적이었지만 공장재 수주와 비제조업부문 지표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 낙관하지 못하게 해 국채가 낙폭을 줄임

[미국]
2y 0.81% (-1.2bp)
5y 1.26% (+0.2bp)
10y 1.81% (+0.9bp)
30y 2.60% (+3.3bp)

[기타 10Y물]
영국 1.20% (+3.1bp)
독일 0.16% (+2.8bp)
프랑스 0.46% (+2.3bp)
이탈리아 1.69% (+3.1bp)
스페인 1.23% (+2.7bp)
그리스 7.64% (-11.7bp)

2.글로벌 증시

* <뉴욕 마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안감 증가에 따라 하락 마감... 국제 유가 하락과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들의 부진도 증시 하락에 한 몫

* 美 대선 불확실성에 시장 공포지수인 시카고옵션거래소의 변동성지수(VIX), 전 거래일보다 14.70% 급등한 22.16 기록

* 다소 엇갈린 美 경제지표
- 3분기 생산성 증가율은 3.1%(연간 기준) 기록... 조사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최고치
- 9월 제조업수주, 0.3% 늘어나며 시장 전망치 0.2% 상회 (3개월 연속 증가)
-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 7천명 늘어난 26만5천명...9개월래 최고치를 보였지만 고용시장 호조세를 훼손하지는 않을 수준으로 평가
- 10월 마킷 서비스업 PMI 확정치, 예비치에 부합하는 54.8을 기록한 반면 ISM이 발표한 10월 서비스업 PMI는 전월대비 2.3포인트 하락한 54.8 기록 (예상치 56.0)

* 국제 유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 지속과 OPEC 감산 합의에 회의감이 지속되면서 6주 최저치로 추락
  - 전날 미국의 원유재고가 1440만배럴 증가한데 이어 WTI 선물 인도지역인 쿠싱의 재고까지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증폭

* 페이스북 주가, 전일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이익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이번 분기 실적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5.6% 하락
  웨어러블 기기 업체인 핏빗 주가, 보통 판매가 증가하는 올해 4분기 실적 전망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돈 데 따라 33.5% 급락

* <유럽 마감>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지만 국제 유가 하락과 미국 대선 불안감 영향으로 혼조세
  - 英 법원,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결
   내년 3월말 이전까지 EU 탈퇴 절차를 개시하려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계획에 제동 ... 정부 대변인 '의회에서 승인된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결정...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힘

* <상하이 마감> 중국의 10월 서비스업 지표 호조에 오름세를 보였으나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오름폭 제한

* <도쿄 마감> '문화의 날'로 휴장

DOW30	17930.67	(-0.16%)
NASDAQ	5058.41	(-0.92%)
S&P500	2088.66	(-0.44%)
NIKKEI225	17134.68	(휴장)
SHANGHAI	3128.94	(+0.84%)
FTSE100	6790.51	(-0.80%)
DAX30	10325.88	(-0.43%)
CAC40	4411.68	(-0.07%)

3.글로벌 환시

* 파운드화, '하드 브렉시트' 우려 완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져 달러에 가파르게 상승

유로/달러	1.1104	(+0.0007)
유로/엔	114.21	(-0.33)
달러/엔	102.97	(-0.32)
달러/위안	6.7491	(-0.0071)
파운드/달러	1.24567	(+0.01557)

NDF 1144.00 / 1145.00원...4.60원 상승

4.글로벌 상품

* <국제 유가> 미국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 지속해 하락
* <국제 금값>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불확실성과 달러화 약세에도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3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세

WTI 44.66 (-1.5%)
COMEX금 1303.30 (-0.4%)

5. 전일 국내 지표

코스피 1983.80 (+0.25%)
코스닥 609.99 (+0.65%)
원/달러 1139.60 (-10.20)
KTB 110.33 (-0.02)
LKTB 130.30 (+0.10)

6. 전일 국내 주요 금리

* 국고채 금리 & 국채선물, 혼조세 마감. 국고채 금리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3년 이하 단기물은 소폭 약세, 중장기물은 소폭 강세로 마감.
- 국채 선물은 장중 한 때 약세폭을 키우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대선 후보가 이메일 스캔들로 기소될 수 있다는 소식에 빠르게 강세로 전환.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

CD(91d) 1.3900% (0.00bp)
1y 1.4190% (+0.20bp)
3y 1.4280% (-0.80bp)
5y 1.4900% (-1.30bp)
10y 1.6790% (-1.50bp)
20y 1.7700% (-1.40bp)
30y 1.7930% (-1.40bp)
50y 1.7870% (-1.10bp)

7. 본드 스왑 스프레드

1Y	-7.60bp	(-0.10bp)
2Y	-11.55bp	(-0.80bp)
3Y	-9.55bp	(-0.20bp)
5Y	-10.25bp	(-0.20bp)
10Y	-18.65bp	(-0.25bp)

8. IRS/CRS 동향

* IRS, 뚜렷한 재료부족으로 소폭 하락 마감.
* CRS,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해 큰 폭의 변동이 없이 소폭 하락.

*IRS 금리

1Y	1.3500%	(0.00bp)
2Y	1.3275%	(-1.00bp)
3Y	1.3325%	(-1.00bp)
5Y	1.3875%	(-1.50bp)
7Y	1.4275%	(-1.50bp)
10Y	1.4925%	(-1.75bp)

1*2Y	-2.25	(-1.00bp)
2*3Y	0.50	(0.00bp)
2*5Y	6.00	(-0.50bp)
3*5Y	5.50	(-0.50bp)
5*7Y	4.00	(+0.00bp)
5*10Y	10.50	(-0.25bp)

*CRS 금리

1Y	1.0500%	(-2.00bp)
2Y	0.9500%	(-2.00bp)
3Y	0.9250%	(-2.00bp)
5Y	0.8950%	(-2.00bp)
7Y	0.8550%	(-1.50bp)
10Y	0.8600%	(-1.50bp)

9. 주요뉴스

[해외]

* BOE,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행 0.25%로 동결...브렉시트 이후 경기가 예상보다 견고하게 성장하면서 올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사실상 배제
  -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 & 자산매입 규모 기존 국채 4350억파운드, 회사채 100억파운드 유지
  -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만료"(expired) 됐다고 언급... 지난 8월 브렉시트 우려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필요하다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제로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한것과는 상반된 발언
  - 올해와 내년 GDP 전망치를 각각 2.2%와 1.4%로 제시... 기존 예상치인 2%와 0.8% 대비 높은 수준

* 중국 10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52.4 기록... 9월 서비스업 PMI 52.0보다 0.4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6월 이래 최고치
  - 신규 사업의 회복이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서비스업 PMI가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

* 연준, 지난해에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는 12월에 강한 매파입장 자제할 것 <WSJ>
  - 연준, 지난해 고용 시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금리를 네 차례 올리겠다는 매파 성향을 드러냈고 이는 주가 급락과 달러화 급등, 상품 가격 하락 등을 촉발
  - 강한 매파 입장을 드러내기보단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선호할 것... 금리를 올릴 이유는 충분하다고 덧붙힘

[국내]

* 17일 수능일 증시 거래시간 1시간 순연
- 3년국채선물, 5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 변경전 : 09:00 ~ 15:45
    * 변경후 : 10:00 ~ 16:45
-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 변경전 : 09:00 ~ 17:00
    * 변경후 : 10:00 ~ 17:30

* 30년 국채선물 가능성에 대한 채권시장 반응은
- 30년 국채선물 신규 도입 가능성에 환영. 국고채 30년물에 대한 헤지수단으로 30년 국채선물의 도입이 필요. 그간 초장기 국고채는 10년 국채선물로 헤지해왔는데 30년물이 도입된다면 국고채 30년물에 맞춰 헤지가 가능해지기 때문
- 다만, 초장기물이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 여부가 관건. 국고채 5년물 선물의 거래부진도 언급

* 카드채 불안 진정되나...스프레드 진정에 발행도 온기

- 카드채 스프레드가 연중 최고치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캐리 수익을 노린 수요가 되살아난 점이 배경

* 한국거래소, 증권분쟁 과실상계 비율 가이드라인 마련

* 보험금 받기 쉬워진다...청구서류 간소화, 보험사별 서류 사본 인정 기준 완화

금일 예정 지표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 연설]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연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연설]

미국-10월 실업률 (예상:4.9%, 이전:5.0%)
-9월 무역수지 (예상:-37.80B, 이전:-40.70B)
-10월 비농업고용 (예상:175K, 이전:156K)
유로존-10월 합성 PMI (예상:53.7, 이전:53.7)
-10월 서비스 PMI (예상:53.5, 이전:53.5)
독일-10월 서비스 PMI (예상:54.1, 이전:54.1)
-10월 합성 PMI (예상:55.1, 이전:55.1)